“총선승리·정권교체 위해 신당 세력 반드시 통합해야”

신당 주자 인터뷰 ④ 박준영

대담=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는 퇴임 이후, 조그마한 텃밭을 일구는 농부의 삶을 꿈꿨다. 기회가 허락된다면 국정홍보처장, 청와대 공보수석, 전남지사 등을 지내며 얻은 경험과 못 다 이뤘던 일에 대한 아쉬움을 지역민과 나누고도 싶었다.

하지만 피폐한 호남의 현실과 엄중한 시대적 상황을 마주한 그는 소박한 꿈을 접고 야권 재편의 험하고도 힘든 길을 선택했다. 3선 전남지사를 지낼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준 지역민과 당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며 책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는 지난해 7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데 이어 9월에는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새해 가칭 ‘신민당’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진정성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치 기반이 취약한 그는 냉혹한 정치 현실에 직면하며 어려움도 겪고 있다. 안철수 신당 바람과 저조한 지지율, 난항을 겪고 있는 신당 세력 통합 등은 그의 미간을 주름지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일 여의도 신민당 창당 추진위 사무실에서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쉬운 길이라면 결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대적 책무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어진 길을 가겠다”는 담담하고도 굳건한 입장을 보였다.

-탈당은 그렇더라도 신당 창당은 의외다.

▲전남지사 퇴임 이후, 호남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 출구는 궁극적으로 정권 교체지만 새정치연합은 당내 패권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당시 비대위 등 지도부에 많은 조언도 했었다. 탈당 카드로 경고도 했다. 변화는 없었다.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신당 창당으로 야권 재편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민당 창당 시점은.

▲경기도당, 경북도당에 이어 6일 광주시당, 전남도당 창당 대회를 갖고 오는 17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는다. 당초 지난 12월 말에 창당할 예정이었지만 신당 세력 간의 통합을 위해 미뤄왔다. 하지만, 신당 세력 간의 통합이 가능하다면 중앙당 창당대회 연기도 고려할 수 있다.

-신당 세력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나.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신당 세력들의 목표는 총선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의 기반 조정이다. 기득권에 연연해서는 공멸이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신민당은 신당 세력의 통합에 대비, 후보 위주보다는 전국적 조직 확대에 역점을 두고 창당에 나서고 있다.

-호남의 현실을 진단하면.

▲호남은 정치적으로 고립돼 있다.경제적으로도 낙후와 차별의 덫에 걸려있다. 여기에 호남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정당으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다. 이름을 바꾼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 관심이 없다. 선거 때만 표를 요구하는 친노 패권주의 세력으로부터 이용만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호남 스스로 정권 창출은 어렵다는 패배주의에도 빠져 있다.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출발은 호남의 가치와 민심을 담을 수 있는 당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지지율이 저조하다. 호남이 중심이 되는 통합 신당을 창당하고 야권 재편을 이끌어 낼 수 있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 지지율은 그리 중요치 않다. 우선, 호남 신당 세력과의 통합이 필요하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통합 신당을 만들어내야 한다. 신민당이 통합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당대당 통합 혼란만… 제3지대서 만나야

호남민심 역사 고비 때마다 탁월한 선택

개헌 통해 권력구조 개편·지역주의 타파

-신당 세력의 통합 방안과 시기는

▲당 대 당 통합은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국민적 감동도 이끌어 내기 어렵다. 제3지대 통합이 길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만나야 한다. 이달 내에 신당 세력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1월이 넘어가면 신당 세력들의 총선 후보들이 구체화 되면서 통합이 과정에서의 논란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총선 연대는

▲그래서는 안 된다. 떳떳하게 경쟁해야 한다. 분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호남은 물론 수도권에서 선전할 수 있다. 통합 신당이 출범한다면 호남 표심과 전통적 야권 지지층, 중도 진영의 지지가 결집할 것이다. 제1야당으로 정권교체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광주·전남 현역 국회의원 교체 여론이 높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이다. 호남 민심은 역사의 고비마다 탁월한 선택으로 올바른 시대적 흐름을 주도해 왔다. 투표로서 호남 정치의 변화는 물론 호남의 미래를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 백지 상태에서 ‘말꾼’ 보다는 ‘일꾼’을 선택할 것이다.

-안철수 신당 바람을 어떻게 보는지.

▲분명한 정책과 노선 등 신당의 콘텐츠가 아직 보이지 않아 뭐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호남 민심도 안 의원이 전국적 지명도가 높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안철수 신당 바람의 이면에는 호남의 신당 세력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사과드리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신당 창당에 나선 안 의원도 역사적, 시대적 소명의식은 물론 호남의 한에 대한 깊은 성찰의 자세로 신당 세력의 통합 등 야권재편에 나서야 한다.

-차기 대선 주자군의 출신 지역이 대부분 영남에 집중되고 있다.

▲나라로 보면 불행한 일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영남 출신의 군부 독재가 장기화됐으며 경제 개발도 영남축으로 이뤄졌다. 권력과 부가 영남이 중심이 된 것이다. 반면, 호남 등 타 지역은 영남과 수도권 등으로의 인구 유출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지역적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권력 엘리트가 한 지역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호남은 물론 제주도와 강원도에서도 대선 주자가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도 전제돼야 하지만 권력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밝히겠다.

-4월 총선 불출마 여부는

▲신당 창당 선언과 함께 어떠한 선거에도 나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면서 선거에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함께 하겠느냐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지금은 신당 창당 및 통합 신당 창당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총선 불출마 여부는 이후에 밝히겠다.

-박주선·천정배 의원은 호남 개혁정치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공감하지만 전략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을 자주 거론한다면 그 반작용으로 호남의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 오히려 ‘바른 정치’ 복원이 낫겠다. 신당 세력이 지역과 국가, 민족을 위한 바른 정치에 함께 나선다면 자연스레 호남 개혁 정치도 자연스레 복원될 것이다.

〈끝〉

/정리=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준영은 누구?

국민의 정부 靑 공보수석·국정홍보처장 역임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1946년 영암에서 가난한 농부의 9남매 중 8번째이자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목포중에 다닐 때 아버지가 병석에 누우면서 가세가 기울었고 고교 진학을 미루고 아버지를 대신해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었다.

부친이 사망하자 상경한 박 전 지사는 낮에는 중국집 등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었고, 밤에는 학업에 매진해 인창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박 전 지사는 1972년 중앙일보에 입사했으나,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언론 탄압에 항의했다가 강제해직됐다. 해직 후 좌절과 고통을 극복하고 미국 유학길에 오른 그는 1987년 오하이오대학에서 신문학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중앙일보에 복직, 뉴욕특파원을 거쳐 편집부국장까지 지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DJ)과는 특파원 시절 만나 인연을 맺었다.

그는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언론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청와대 공보수석, 국정홍보처장 등을 역임했다.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했다가 2004년 박태영 전 전남지사의 사망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도백의 자리에 올라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지사 재임 동안 2010년 F1 그랑프리, 2012년 여수엑스포, 2013년 순천국제정원박람회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유치했다. 또 친환경 농어업과 신재생에너지, 해양관광 개발 확충 등에도 주력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가칭 신민당 광주시·전남도당 출범

6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칭 신민당 광주시·전남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박준영 창당위원장이 내빈을 소개자하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추진하는 가칭 신민당 광주시·전남도당이 6일 출범했다.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광주시·전남도당 창당대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행사에는 중앙당 박준영 대표, 김경천·류근찬 공동 부대표, 채일병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장, 김종식 전남도당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정대철 상임고문, 무소속 황주홍 의원, 김민석 원외정당 민주당 의장, 전·현직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지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준영 대표는 치사에서 “국민들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에게 더 이상 국가를 맡길 수 없으니 정치를 개혁하라고 명령한다”며 “정치와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저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